

경제

기아차 광주공장 증설 4개월째 표류

노노갈등속 노사협의 지연...내년 62만대 생산 불투명

'간 큰' 광주·전남 남자들

화이트데이 가장 안챙겨

남성이 여성에게 선물을 주는 화이트데이(3월14일)를 가장 안챙기는 간 큰(?) 남자는 광주·전남 남자들이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편의점업체 GS25가 지난해 화이트데이와 올해 밸런타인데이의 지역별 점포당 행사상품 매출을 분석한 결과 화이트데이에 가장 판매수가 가장 낮은 곳은 광주·전라도가 꼽혔다. 판매수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이었으며 ▲경기도 ▲부산·경남 ▲대전·충청도 ▲강원도 ▲대구·경북 순이었다.

반면 광주·전남 여성들은 밸런타인데이에 남성들에게 초콜릿 선물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콜릿판매수를 분석한 결과 광주·전남은 ▲서울 ▲경기도 ▲강원도 ▲대전·충청도 다음으로 초콜릿이 많이 팔렸다.

한편 남자들이 여성들보다 연인의 선물에 지갑을 더 많이 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지역 백화점업체에 따르면 밸런타인데이보다 화이트데이에 매출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지난해 크리스마스 시즌(12월19일~25일)을 기준으로 작년 화이트데이 시즌(3월8일~14일)의 매출과 밸런타인데이 시즌(2월8일~14일) 매출비중을 비교한 결과 화이트데이가 83%로 밸런타인데이(75%)보다 8%p 높았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62만대 증산 프로젝트가 노사협의 지연으로 4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조만간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간적으로 62만대 증산 프로젝트의 내년 가동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에 따르면 기아차는 지난해 12월 광주공장의 생산규모를 현재 연간 50만대에서 62만대 24%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기아차는 구체적으로 ▲광주1공장은 카렌스 후속모델(프로젝트명 RP)을 2012년 말 투입해 연간 20만대 생산을 유지하고 ▲스포티지R과 쏘울을 병행 생산하는 광주2공장은 생산능력을 현재 시간당 42대에서 66대로 올려 연간 20만대에

서 31만대로 늘리고 ▲봉고트럭을 생산하는 광주3공장은 시간당 21대에서 23대로 늘려 연간 10만대에서 11만대로 증산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아차는 1500억원을 들여 2공장 사원주차장 일부에 생산시설을 증축하는 공사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1공장과 3공장의 생산라인 조정도 함께 진행한다.

하지만 노사협의 지연으로 증산계획 발표 이후 4개월째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노사는 그동안 2차례 머리를 맞췄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고, 추후 협의도 불투명해 증산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1공장은 3월부터

주말·휴일을 이용한 보완공사가, 5월에는 본공사가 진행돼야 한다.

2공장은 전착공장 및 의장공장 신축·증축 공사를 한 뒤 9월 한달간 생산라인 설치를 마치고 10월부터는 시험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3공장은 봉고트럭 물량이 늘어나 서둘러 생산라인을 조정해 4월부터는 증산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현재 1공장 사원주차장 일부와 2공장 신·증축을 위한 측량·지질검사가 진행되고 있을 뿐 모든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이는 노사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증산에 따른 인력 충원 규모 등 노사 이견에, 노조 내 계파 갈등이 증산계획의 발

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노조는 현재 노조비 횡령 의혹사건으로 경찰 수사와 고발사건에 휘말려 있다.

박병규 광주공장 노조 지회장은 "지난해 12월 첫 상관계 이후 본사의 노조지부를 상대로 한 사업계획설명회가 늦어지면서 최근에야 사실상 첫 노사협의를 가졌다"면서 "노조 지부와 광주지회 대의원대회, 실습생 사고 등도 노사협의를 늦어진 배경이 됐다"고 밝혔다.

일정지 지연되면서 증산계획 자체가 좌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기아차 협력업체 관계자는 "증산 지연은 곧 지역 경제 타격으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협력업체와 동반성장에도 대한 기대감을 꺾는 것으로 노사가 조속한 증산 협의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주간 증시 포커스

2000선 코스피 상승 흐름

IT·건설·조선·건설 맑음

중국의 GDP 목표치 하향 조정부터 이란 사태에 따른 유가상승 우려, 그리스의 디폴트 불확실성, 그리고 올해 첫 선물·옵션 동시 만기까지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이번 주에도 역시 2000선 초반에서 한 주의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리스 국제 교환에 대한 민간채권단 참여비율이 그리스 정부가 가이드 라인으로 제시한 75% 수준을 넘어 85.8%로 알려지면서 일단 그리스의 디폴트 관련 증대고비는 넘기게 됐다.

이에 코스피도 다시 2000선을 회복하며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당장 주식시장 상승을 이끌만한 상승 동인이 많지 않아 당분간 지수 상승단력 둔화 흐름은 이어질 수 있지만, 완만한 매출소화 과정 속에 업종 및 종목별 상승시도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번 주에는 미국의 2월 소매판매 및 FOMC 회의, 중국의 전년대 폐막 이후의 정책 등이 시장의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미국은 연속적인 고용회복세에 이어 소매판매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경우 고용 및 소비회복에 따른 보다 안정적인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2월 이후 이어진 주식시장의 모습을 통해서, 저가 매수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풍부한 대기 자금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확산 가능성이 크지 않은 불확실성 요인들이 차익실현의 발미를 제공하며 기간 조정이 지속되고 있지만, 차익매출 소화 과정 역시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코스피의 회복세가 조금 더 이어지더라도 2000선 부근에서 주시 비중을 높이는 투자전략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큰 틀에서의 유동성 장세는 여전히 진행중이며, 주가는 3월 중에 완만한 상승 흐름을 재개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따라서 미국의 경기회복과 중국의 정책 모멘텀이 동시에 작용할 수 있는 IT(하드웨어, 반도체)업종과 최근 수주가 되살아나고 있는 건설, 조선 업종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주요 IT 하드웨어 업체들의 경우 근래 들어 1/4분기 실적개선 추세가 더욱 강화되고 있고, 2012년 전제로도 안정적인 이익성장기에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여전히 시장의 주도주 지위를 이어 나갈 것이다. 이들 기업은 미국의 경기 개선세와 중국의 내수소비 진작의 최대 수혜주이다.

한편, 오일 달러를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동의 발전, 화학 등 플랜트 건설시장의 수주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따른 건설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도 좀 더 유지할 필요가 있다.

또 고유가로 인한 해양플랜트와 LNG선 발주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수주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는 조선업종에 대해서도 단기매매 관점에서 접근 전략을 추천한다.



박종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

광주·전남 소상공인 10명중 9명

"작년 경영수지 적자 내지는 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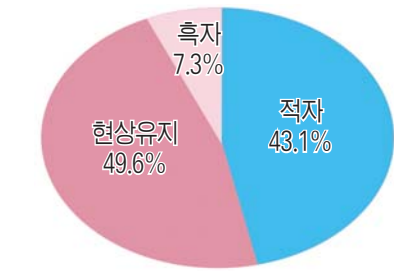
광주·전남지역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은 지난해 경영수지가 '적자'(43.1%)였거나 겨우 '현상유지'(49.6%)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 지역 소상공인 경영상황 조사 결과, 지역 소상공인 88.9%는 현재 계감경기가 '매우 어렵'(58.0%)거나 '다소 어렵다'(30.9%)고 응답했다.

또 92.7%는 최근 1년간 경영수지가 '적자' 또는 '현상유지' 수준에 머물렀다고 답했다. 흑자 운영은 고작 7.3%에 그쳐 대부분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슈퍼마켓과 전통시장의 경영수지 악화가 심각했다.

경영 악화의 주요요인으로는 81.6%가 같은 업종에서 경쟁이 심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진입이 쉬운 도소매·서비스업 분야에서 많이 나타났다. 자신이 운영하는 업종에 대기업이 참여

최근 1년간 경영수지



하고 있다는 답변은 53.6%에 달했고, 이때문에 77.8%가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폐업·철수·파산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슈퍼마켓은 83.0%가 경영환경이 어려워졌다고 답해 대형 할인점과 기업형슈퍼마켓(SSM) 진출로 큰 피해를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의 78.2%는 올해 경영 전망도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59.5%는 자신이 '빈곤층'에 속한다고 답해 경제활동에 열등감과 자괴감이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골목상권 지키기 광주·전남 소상공인 포럼 오늘 출범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맞서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한 '광주·전남 소상공인 포럼'이 출범한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는 '광주·전남 소상공인포럼 출범식과 정책토론회'를 12일 오후 2시 광주중소기업지원

센터 대회의실에서 연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강준태 광주시장, 이의준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 양보승 중소기업중앙회 지역회장 등이 참석한다. 출범식에 이어 정책토론회도 열린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경영자총협회 제32회 정기총회가 지난 9일 광주 무등파크호텔에서 지역 경제인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노사협력 대상에 (주)서산 광주경총 정기총회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유희열)는 지난 9일 광주 무등파크호텔에서 '제32회 정기총회 및 제13회 노사협력 대상 시상식'을 열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해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와 올해 사업계획·예산 등을 확정했다. 또 임원 개편도 했다. 부회장에 김홍균 남산산업 회장과 양진석 호인 대표이사(새로 선임됐고, 신임 이사에는 박치영 모아종합건설 회장, 유동윤 반도호이스트크레인 대표이사, 심동남 월드윈 대표이사, 이정연 한일종합기계 대표이사, 류재민 동강대학 총장 등이 선임됐다.

'제13회 노사협력 대상'은 (주)서산이 수상했다. 서산은 1974년 설립한 콘크리트제조업을 선도 기업으로, 1987년 노조 설립이후 현재까지 25년동안 무분규 사업장이다.

또 노사협력 유공자도 선정, 포상했다. 광주시장상에 김광훈(우리로광통신)·양준희(광주은행)씨, 광주고용노동정책상에 김홍수(신흥택시)·남수희(남화토건)씨, 한국경총 회장상에 민중철(무등)·김상현(남해종합개발)씨, 광주경총 회장상에 정남재(첨단소프트센터)·이성용(서산)씨가 각각 받았다. /박정욱기자 jwpark@

로도복권 (제484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1 3 27 28 32 45 11	
등 위	당첨금(원)
1 6개 숫자 일치	2,305,303,063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72,040,721
3 5개 숫자 일치	1,716,533
4 4개 숫자 일치	50,000
5 3개 숫자 일치	5,000

자유투어
www.jaUtour.com
광주지점 062)371-3757

무안공항출발
무안-북경 4일(화요일출발)/5일(금요일출발)
북경 4일 349,000 원~
북경 5일 429,000 원~

무안-상해-방콕 5일 (목,토요일출발)
[특급호텔] 방콕,파타야 5일 869,000 원~

[더저인-초특급호텔] 방콕,파타야 5일 1,029,000 원~

국제선 항공권 판매개시 >> 무안-북경 티켓 조인 200,000원~ / 무안-상해 티켓 조인 215,000원~ (Tax별도)

중국
[5대음선포함/5성급호텔]
황산/상해/항주+후천 5일 399,000 원~

미주
[하와이+미서부 11일 1,790,000 원~]

일본
[HIT/후쿠오카+아미구치 특급호텔] 4일 1,990,000 원~

동남아
방콕 파타야 5일 299,000 원~

유럽
[3대음선포함/5성급호텔]
러시아 북유럽(핀/노/스) 12일 239,000 원~

예/약/상/담

북구점 267-8587

상무점 652-2974

수완점 574-1300

동구점 227-8255

남구점 382-5353

첨단점 233-2627

하남점 954-9700

서울시 중구 동대문로 2가 100동 1001호 | 서울특별시 중구 동대문로 2가 100동 1001호 | 서울특별시 중구 동대문로 2가 100동 1001호